^^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유현주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교재가 나오고,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여러 학생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 국어 분석법 설명에 앞서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A형 B형이 나뉘는 2014학년도 수능은
기존 수능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계시는거죠.
물론, 현재까지는 2012년 5월에 치러진 예비수능 시험밖에 우리가 활용할 자료가 없어서 확언을 하긴 어렵지만 수능특강과 비교해서 현재 시중에 있는 교재들로 인해 혼란을 겪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이번 시간에는 A형과 B형에서 의미있게 달라지는 영역 중 하나인 '문법' 부분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자면
2014학년도 예비수능 시험은 2012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국어 커트라인이 98점(원점수)이었던 2013학년도 수능이 아닌,
커트라인이 94점(원점수)이었던 2012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기존보다는 쉽게 난이도를 조정하겠다는 시험이 바로 A형 시험입니다.
B형 시험은 그보다 더 난이도를 높여 기존 수능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죠.

즉, A형은 작년 시험에 비해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작년 수능보다 훨씬 난이도가 있을 것이고, B형은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에 대비한 학생들은 쉬운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쉽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준비한 학생들은 결코 원하는 성적을 획득하는 것이 수월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2014학년도 예비 수능 문제는 꼭 분석해 주셔야 합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불패 아시죠^^

2014학년도 예비수능에서는
문법 문제가 A형, B형 모두에서 각각 5개씩 출제되었고, 공통 문제도 2문제 있었습니다.
A형의 경우, 음운의 정의, 목적어의 역할 및 쓰임, 동음이의어의 차이에 관해 출제되었고, B형의 경우,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틀리기 쉬운 문장 표현에 관해 출제되었습니다. 공통 문제로는 의도에 따른 어미 표현, 파생어 형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A형의 경우 기존의 수능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지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통 부분을 보시면 '파생 접사'를 이용하여 새말을 만드는 과정을 묻는 문제처럼 직접적으로 형태론에서 묻는 용

어들을 노출시켰습니다. 만약, 기존 수능이었다면 '파생 접사'의 정의부터 설명하고, 그에 따른 예를 충분히 들어 완벽히 이해한 다음 파생어 형성에 관해 설명했겠지만 이렇게까지 설명하려면 비문학 지문 정도를 할애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뀔 수능에서는 독서(비문학) 영역의 언어 지문이 아예 삭제되었고, 이 부분이 문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한 보기만으로 모든 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본 교육과정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은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숙지하고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그 개념에 적용되는 새로운 예들만 보기에서 언급하게 된 겁니다.

또, B형의 경우는 이 부분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번의 표준발음법과 관련된 문제도 '연음'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는데 이제껏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12번도 한글 맞춤법 조항을 예로 들고, 이에 대해 적용하는 문제를 내어 앞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유형들이 출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구나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음운론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만 파악될 정도이죠.

전반적으로,
A형, B형 모두
기존보다는
기본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기본 문법 개념들을 확실히 정립해야 하는 것은 자명해졌습니다.

그런데, EBS 수능특강 교재를 보니
조금 더 명확하게 문법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EBS 수능특강 교재를 비교해 보니, A형과 B형 부분의 화법, 작문, 문법은 수능형 연습 문제 4, 독서, 문학은 수능형 연습 문제 4, 5가 공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꼭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A형 교재 중 난이도 있는 문법 부분을 보시면,

A형 국어영역 수능특강 p. 89
1. <보기>를 참고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우리말의 합성어 중에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자면 '산나물', '작은집', '들어가다'는 우리말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 : 네. '산나물', '작은집', '들어가다'는 각각 '명사+명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용언의 연결형+용언'으로서 우리말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 그래요. 이렇듯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른 합성어들을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한편 '용언의 어간+명사', '용언의 어간+용언', '부사+명사'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말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서는 용언의 어간과 명사, 용언의 어간과 용언 사이에는 어미가 개입되어야 하고, 부사는 일반적으로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를 꾸며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감안하여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할까요?

① '척척박사'는 '부사+명사'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② '덮밥'은 '용언의 어간+명사'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③ '접칼'은 '용언의 어간+명사'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④ '검붉다'는 '용언의 어간+용언'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⑤ '스며들다'는 '용언의 어간+용언'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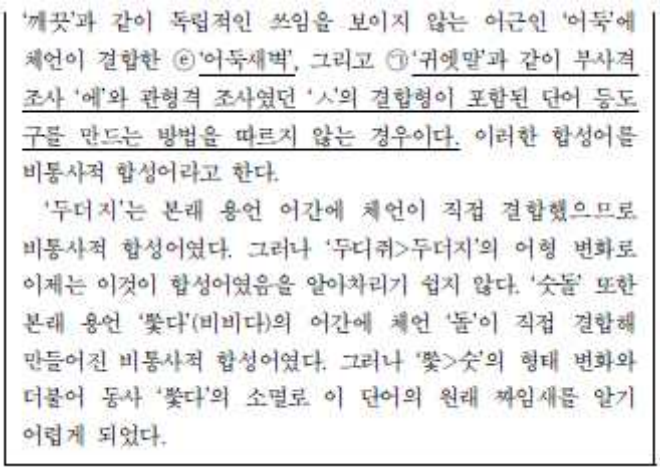
이 문제는 2011학년도 수능 37-39번 비문학 언어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 요약되어 나온 부분입니다.

오늘날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다. '두더'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샅샅이 들추거나 헤친다는 뜻을 지닌 동사 '두더다'(>뒤지다)에서 왔으며, '지'는 '쥐'가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두더지는 '뒤지는 쥐'라는 뜻을 갖는 합성어였다.

'뒤지는 쥐'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뒤지쥐'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뒤지쥐'가 마치 '달리는 차'를 '달리차'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뒤지는 쥐'나 '달리는 차'는 국어에서 단어가 둘 이상 결합된 단위인 구(句)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구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합성어를 만드는 데에도 적용된다.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호두과자',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한 '한번',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잘생기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된장', 체언과 용언이 결합한 '낯설다',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한 '접어들다' 등은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들로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반면에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들도 있다.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오르내리다'와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밀상'이 그 예이다. 또한 '깨끗하다'의



'깨끗'과 같이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에 체언이 결합한 ㉥'어둑새벽', 그리고 ㉦'귀엣말'과 같이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ㅅ'의 결합형이 포함된 단어 등도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두디쥐>두더지'의 어형 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숫돌' 또한 본래 용언 '짛다'(비비다)의 어간에 체언 '돌'이 직접 결합해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짛>숫'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동사 '짛다'의 소멸로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교재 p.90의 경우,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언급없이 'ㄴ첨가'라는 설명만 있습니다. 고유어와의 결합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사잇소리에 대해 개념의 정의나 어떠한 예도 없이 바로 '첨가'라는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 수능에서 출제되었다면 사잇소리 현상의 정의부터 실제 사례까지 정확히 보여주고, 그 다음 첨가가 실현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형태로 출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모두 다 숙지해야겠죠^^

p.93의 3번은 '관형절의 종류'가 출제되었습니다.
관형사절을 언급하며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이 출제되었는데, 문제는 이 개념이 기존 수능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교육과정에서도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넘어갔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세하게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합니다.

p. 94의 4번은 '인칭 대명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개념은 기존 수능에서도 여러 번 출제되었던 개념이지만, 대부분 '재귀 대명사'에 초점을 맞추어 출제되었던 것에 반해, 출제된 적 없는 '부정칭'과 '미지칭'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칫 등한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B형 교재의 경우는

p.94의 4번은 예비수능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입니다. 예비 수능 B형 16번 문제에서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의미 변화'에 대해 출제되었습니다. 훈민정음 언해 원문이 나오고 그에 대한 현대어 풀이, 그리고 선지에서는 의미 확대, 축소 등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해석도 나와 있고, 중세 국어 문법도 묻고 있지 않아 안심하려 했으나 ㅠㅠ

EBS 수능특강에서는 우려하던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04 〈보기〉의 ㉠~㉤을 탐구하여 이끌어 낸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孔·공子·ᄌᆞ·중子·ᄌᆞᄃᆞ·려㉡닐·러ᄀᆞᆯᄋᆞ·샤·ᄃᆡ·몸·이며얼굴·이며머·리털·이·며·술·혼父·부母:모 ㉢·씌받ᄌᆞ·온㉣거·시·라敢:감·히헐·워상히·오·디아·니:홈·이:효·도·이비·르·소미·오·몸·을셰·워 ㉤道:도·를行힝·ᄒᆞ·야㉥일:홈·을後:후世:셰·예:베퍼·ᄇᆡ父·부母:모ᄅᆞᆯ:현·며케:홈·이:효·도·이㉦ᄆᆞ ·춤·이니·라

– '소학언해(小學諺解)' 권 제2, 선조 20년(1587년)

[현대어 풀이]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라, 감히 헐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고, 입신(출세)하여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풂으로써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끝이니라.

① ㉠은 '孔·공子·ᄌᆞ+ㅣ'로 분석되어 현대 국어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말에 '가'가 붙는 것과 차이가 있군.
② ㉡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예로, 현대 국어에서 단어의 첫음절의 'ㅣ' 모음 앞에 'ㄴ'이 오는 것에 제약이 있는 점과 차이가 있군.
③ ㉢은 현대 국어와 달리 'ㅅ'과 다른 자음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합용 병서를 활용하고 있군.
④ ㉣과 ㉦은 현대 국어에서 형태를 밝혀 적는 '끊어 적기'의 방식과 달리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군.
⑤ ㉤과 ㉥은 현대 국어와 목적격 조사의 쓰임이 유사한 예로, 모음으로 끝난 말에는 '를'을, 자음으로 끝난 말에는 '을'을 사용하고 있군.

기존 수능에서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중세 국어 문법이 아주 자세히 출제된 것이죠.

선지를 보시면, 중세 국어의 주격조사, 두음 법칙, 합용 병서, 끊어적기, 이어적기 등의 표기법, 목적격조사까지 아주 세분화되고 자세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1때 열심히 배웠던 중세 국어 문법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현대 국어 문법과 연계되는 부분이므로, 같이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꼭 공부해 주세요.

공부를 안하면 결코 맞출 수 없는 부분입니다. ㅠㅠ

또한, p.99의 2번도 모음 조화가 출제되었는데, '근대 국어부터 현대 국어'까지의 국어사적 변화 과정을 그대로 보기에 활용하여 역시 중세, 근대 국어의 문법까지 확인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95의 5번은 남한과 북한의 어문 규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어문 규정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구요. 중요한 것은 자료 해석 능력입니다. 보기의 조건들을 충분히 보시고, 선지에서는 음운론에서 다루는 개념들이 하나하나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p. 96의 2번도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예비 수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외래어 표기법이 출제되었고, 실제 문법 조항이 나오고 용례까지 세세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외래어는 p.101의 5번에서 또다시 나올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므로, 개념을 꼭 확인해 주세요.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존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ㅠㅠ 꼭 준비해 주세요)

02 〈보기〉는 외래어 표기법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발음 정보를 바르게 탐구하지 못한 것은?

보기

제1장: 표기의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발음 정보		탐구 결과	
'thrill[θril]'의 [θ]는 국어에 없는 소리이다.	➡	제1항에 따라, [θ]는 현용 국어 자모로 바꾸어 써야겠군.	……①
'file[fail]'의 [f]는 우리말의 발음 [ㅎ]나 [ㅍ]와 유사하다.		제2항에 따라, 'file'을 '화일' 또는 '파일'로 적을 수 있겠군.	……②
'internet[íntərnèt]'의 받침소리 [t]는 [ㄷ]처럼 소리가 난다.		제3항에 따라, 받침은 'ㄷ'으로 쓰지 않고 다른 글자로 바꾸어 써야 하는군.	……③
'bus[bʌs]'에서 [b]는 파열음이다.		제4항에 따라, '뻐스'로 쓰지 않고, '버스'로 표기해야 하는군.	……④
'radio'는 실제 원음이 '레이디오우[réidiòu]'로 발음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라디오'로 사용된다.		제5항에 따라, '라디오'로 굳어졌으므로 관용을 존중해야겠군.	……⑤

p. 98의 5번은 훈민정음의 제자원리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기존 수능 및 예비 수능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중요하게 봤지만 수능에서는 제외되었던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고1 교과서와 독서와 문법 교재에서 이 부분까지 수록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그대로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전공 기본 내용으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에 나올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0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휴대 전화의 자판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훈민정음에서 자음의 기본 글자는 'ㄱ, ㄴ, ㅁ, ㅅ, ㅇ'의 다섯이고, 모음의 기본 글자는 'ㆍ, ㅡ, ㅣ'의 셋이다. 이 글자들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자음 글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 글자는 천지인(天地人)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나머지 글자들은 다양한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자음 글자들은 대부분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어졌고, 모음 글자들은 기본자들을 합하여 만들어졌다.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어진 모음 글자 중, 'ㆍ'와 나머지 기본자 하나를 합하여 만들어진 글자를 초출자라 하고, 초출자에 'ㆍ'를 다시 합하여 만들어진 글자는 재출자라 한다.

보기 2

(가)

1 ㅣ	2 ㆍ	3 ㅡ
4 ㄱㅋ	5 ㄴㄹ	6 ㄷㅌ
7 ㅂㅍ	8 ㅅㅎ	9 ㅈㅊ
	0 ㅇㅁ	

예 꽁: 4 → 4 → 2 → 3 → 0

(나)

1 ㄱ	2 ㄴ	3 ㅏㅓ
4 ㄹ	5 ㅁ	6 ㅗㅜ
7 ㅅ	8 ㅇ	9 ㅣ
획 추가	0 ㅡ	쌍자음

예 꽁: 1 → 획 추가 → 6 → 8

① (가)에서 'ㅏ'를 만들려면 1 → 2 를 눌러야 하므로 'ㅏ'는 초출자에 해당하는군.
② (가)는 천지인(天地人)을 상형한 'ㆍ, ㅡ, ㅣ'의 세 글자를 모음의 기본자로 하고 있군.
③ (가)는 기본자에 'ㆍ'를 한 번 합하는 것만으로는 이중 모음 글자를 만들어 낼 수 없군.
④ (나)에 제시된 자음 글자는 모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기본자에 해당하는군.
⑤ (나)의 획 추가 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내는 원리가 적용된 것이군.

공통 부분인 '수능형 연습 문제 4'는 기본적으로 A형 예비 수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도 그대로 출제되고 있고, (예를 들어, A형 예비 수능 13번 문제와 EBS 수능특강 교재 p.104의 4번 문제) 1~5번까지 모두 A형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B형 수준도 고려하여 대체로 개념들이 심화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예비수능의 '공통' 문제 15번처럼 '파생 접사'라는 용어가 그대로 노출되고 개념 설명이 생략된 부분이 거의 공통적인 패턴으로 출제되었습니다. 2, 3, 5번 모두 예를 들어, 3번은 용언의 활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불규칙 활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2013학년도 수능 36-38번 비문학 언어 지문에서는 용언의 활용 개념을 미리 설명하고 문제를 출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 한다. ㉠ 용언은 서술어뿐 아니라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이면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문법적 기능은 주로 어미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므로 국어 문법 연구에서 어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13학년도 수능 36-38번 비문학 언어 지문>

<2013 수능특강 A형, B형 공통 문제>

또, p.105의 5번과 같은 파생 접미사와 어미의 차이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기본 형성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용어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어렵게 생각하실 수 밖에 없죠.

03 〈보기〉의 ㉠~㉢의 구체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용언 중에는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을뿐더러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며, 이러한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불규칙 용언에는 '잇고, 잇지, 이어, 이어서', '돕고, 돕지, 도와, 도와서' 등으로 활용하는 용언인 '잇다', '돕다'와 같이 ㉠어간이 바뀌는 것, '하고, 하지, 하여, 하여서', '이르고, 이르지, 이르러, 이르러서[至]' 등으로 활용하는 용언인 '하다', '이르다[至]'와 같이 ㉡어미가 바뀌는 것, '하얗고, 하얗지, 하얘, 하얘서' 등으로 활용하는 용언인 '하얗다'와 같이 ㉢어간과 어미 모두가 바뀌는 것이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장 원론적인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기본 개념을 완벽히 숙지한 상태라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시험지 안의 정보로만 문제를 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도 등장한 것이죠.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문법만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각각의 개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개념을 정립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성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곧, 화작문의 끝(개념+실전) 교재도 나오게 될텐데요.
선생님도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기본에 가장 충실한 교재를 완성할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수능특강도 좋고, 기출 문제도 좋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질문 있으시면 글 올려 주시구요^^
우리 학생들의 궁금증에 항상 귀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조만간 문학, 독서 영역 등도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